

04 2027학년도 수시

예비번호는 어디까지 도는가

충원율이 말하는 것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숫자부터	2
02 어디가 많이 도나	3
03 언제 도는가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충원율 중앙값 **75%** · 세 곳 중 한 곳은 정원을 한 바퀴 넘게 다시 채웁니다
- ◆ 갈래마다 몇 배씩 갑니다 — 교과 **122%** · 학종 **58%** · 논술 **17%**
- ◆ **마지막 차수는 전화로 옵니다** — 못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
- ◆ 예비번호는 번호가 아니라 「**번호 ÷ 모집 인원**」으로 읽는 법

01 · 숫자부터

뽑는 인원만큼 다시 돕니다

「예비 20번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.」

12월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 생각보다 가능성이 큼니다. 수시 합격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불기 때문입니다. 한 사람이 여섯 장을 쓰고, 붙은 곳 가운데 한 곳만 갑니다. 나머지가 빈자리가 됩니다.

2026학년도 10,490줄의 충원율을 세어 보았습니다. 충원율은 **추가합격 인원 ÷ 모집 인원**입니다.

충원율	그런 곳의 비율	무슨 뜻인가
중앙값	75%	뽑는 인원의 75%만큼 더 들었습니다
100%를 넘는 곳	33%	정원을 한 바퀴 넘게 다시 채웠습니다
200%를 넘는 곳	10%	두 바퀴 넘게 들었습니다
추가합격이 없던 곳	17%	여기는 예비도 안 돕니다

세 곳 중 한 곳은 정원을 한 바퀴 넘게 다시 채웁니다. 100명을 뽑는 곳에서 예비 100번대도 붙었다는 뜻입니다. 「예비 20번이면 어렵겠지」는 근거가 약한 짐작입니다.

다만 17%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. 그러니 「예비는 다 돈다」도 틀립니다. 갈래와 자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.

출처: 어디가 전형결과(대학 제출) 2026학년도 10,490줄을 저희가 집계. 총원 인원을 「명」 단위로 공개한 곳만 셧습니다.

02 · 어디가 많이 도나

갈래마다 크게 다릅니다

총원율은 갈래에 따라 몇 배씩 갈립니다.

갈래	총원율 중앙	까닭
학생부교과	122%	성적순이라 위쪽에 겹쳐 붙습니다
학생부종합	58%	대학마다 보는 것이 달라 덜 겹칩니다
논술	17%	고사일이 겹쳐 여러 곳에 못 붙습니다

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돕니다. 까닭이 뚜렷합니다. 교과는 내신 성적순으로 뽑습니다. 그래서 **성적이 좋은 학생이 여러 곳에 동시에 붙습니다**. 그 학생이 한 곳을 고르면 나머지가 통째로 빈자리가 되고, 그것이 아래로 내려갑니다.

논술은 반대입니다. 논술은 대학별고사를 **직접 가서 치러야** 합니다. 뒤에서 보시겠지만 고사일이 몇 날에 몰려 있어서 **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자리 자체가 적습니다**. 중복 합격이 적으니 빈자리도 적습니다.

그래서 이렇게 읽으십시오

교과에 지원했다면 예비번호를 넉넉히 보셔도 됩니다. 중앙값이 122%이니, 뽑는 인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입니다.

논술은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. 중앙값이 17%입니다. 예비번호가 뒤쪽이면 기대를 접고 정시를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.

출처: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. 갈래별 중앙값이며 학교·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.

03 · 언제 도는가

기다리는 동안의 일정

충원은 정해진 기간에, 정해진 방식으로 합니다.

차례	무슨 일	무엇을 하실 것
1	수시 최초 합격 발표	결과를 확인합니다
2	등록 기간 — 붙은 학생이 한 곳을 고릅니다	여기서 빈자리가 생깁니다
3	충원 합격 통보 — 여러 차례 합니다	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
4	충원 마감	여기서 끝납니다

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마지막 차수는 전화로 통보하고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받습니다. 못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.

충원 기간에 지켜야 할 것

- ☐ 대학이 전화를 거는 기간 을 달력에 적어 둘 것
- ☐ 원서에 적은 전화번호 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할 것
- ☐ 그 기간에 모르는 번호를 받을 것
- ☐ 보호자 번호 도 함께 적어 둘 것
- ☐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할 수 있게 가족이 미리 정해 둘 것
- ☐ 등록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확인할 것

해마다 전화를 못 받아 놓치는 학생이 나옵니다. 수업 중이거나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아서입니다. 이건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손해라 특히 아깝습니다.

그리고 하나 더.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충원으로 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 「돌면 갈 것인가」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. 전화가 온 자리에서 정하려 하면 몇 분 안에 3년을 정하게 됩니다.

출처: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충원 합격 안내. 차수와 기간·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원서 쓸 때 미리 하실 것

충원은 발표 뒤에 대응하는 일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원서 쓸 때 정해집니다.

차례	언제	무엇을
1	원서 쓸 때	여섯 장의 순위를 가족이 정해 둡니다
2	원서 쓸 때	작년 충원율을 갈래별로 봅니다
3	발표 뒤	예비번호를 모집 인원과 견줍니다
4	충원 기간	전화를 받고 정해 둔 대로 답합니다

3번의 셈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예비번호 하나만 보면 뜻이 없습니다. 모집 인원으로 나누어 보십시오. 100명 뽑는 곳의 예비 30번은 충원율 30%면 됩니다 — 교과라면 중앙값이 122%이니 넉넉합니다. 10명 뽑는 곳의 예비 30번은 충원율 300%가 필요합니다 — 10%만이 200%를 넘으니 어렵습니다.

이렇게 보시면 같은 「예비 30번」이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이 보입니다. 번호가 아니라 번호 ÷ 모집 인원이 자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비번호를 받으신 뒤에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. 하실 일은 둘뿐입니다 — 번호를 모집 인원으로 나눠 보는 것과 전화를 받는 것. 둘 다 집에서 하십니다. 그 시기에 돈을 쓰셔야 한다면, 차라리 정시 준비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.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갑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충원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예비번호가 없으면 완전히 끝인가요?

불합격은 불합격입니다. 예비번호를 안 준 것은 충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

다만 대학마다 예비번호를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. 일부만 번호를 매기는 곳도 있고, 「충원 대상 아님」만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. 그 대학의 안내를 정확히 읽으십시오.

그리고 그 시간에 정시를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. 앞에서 보신 대로 17%는 한 명도 돌지 않았습니다.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, 기다리기만 하면 정시 준비 기간을 잃습니다.

Q. 충원으로 붙으면 불리한가요?

전혀 아닙니다. 입학하면 최초 합격자와 완전히 같습니다. 기록에 남지 않고, 장학이나 학과 배정에서 불이익도 없습니다.

「추가로 붙었다」는 말 때문에 마음이 쓰이실 수 있는데, 앞의 숫자를 보시면 충원이 예외가 아니라 보통입니다 — 교과는 중앙값이 122%입니다.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.

신경 쓰실 것은 하나뿐입니다. 등록 마감 시각을 넘기지 않는 것. 충원 차수는 시간이 짧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예비번호는 번호가 아니라 비율로 읽으십시오. 그리고 그 기간에는 전화를 받으십시오. 그 둘이 전부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·학과의 충원 인원과 예비번호는 신지 않습니다. 충원 절차와 기간은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한 대학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추가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